

開 幕 演 說

(要 約)

李 洪 九

(前韓國共產黨研究協議會長)

동아연구소가 기획, 주최하고 있는 “受容 시리즈”는 우리 학계에 훌륭한 학문적 공헌이 기대되는 착상입니다. 한 사회, 문화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을 동시에 연결시켜 성찰해보는 방법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아의 근대화”라는 과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諸次元과 관련지워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같은 연구의 집적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0 년은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의 역사에 준 영향과 충격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를 토대로 한국근대사를 재조명해보는 노력은 대단히 의미가 큼니다. 특히 1784 년 李昇薰의 천주교 세례를 기점으로 한 天主教 受容 200 周年과 改新教 受容 100 周年의 紀念行事가 작년, 올해에 잇달아 개최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한층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 년의 시기를 政治史 중심으로 본다면 아세아도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참여시대가 도래했고, 대중의 행동 사고 습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아세아 각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전개됩니다.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 구체적 수용과정은 저마다 궤적을 달리합니다.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가진 韓·中·

日 3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정치이념, 사회개혁이념의 수용 및 발전과정은 더욱 차이가 크며 그것은 민족주의와 결부된 공산주의의 수용과정에서 한층 확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연구는 아세아의 근대화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시즘의 수용이 지난 100년간 어떤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느냐는 것은 우리의 연구과제일 뿐 아니라 범세계적 연구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동양과 서양 모두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가 세계학계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이 연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회의에서는 문제를 韓·中·日 3국에만 국한시키고 있지만,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수용연구에 특히 중요한 베트남을 비롯한 東南亞에서의 수용연구로 그 공간적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산주의가 우리 근대사에 미친 영향이 1920년대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이 영향을 독립운동기, 해방, 현재를 시대적으로 연결시켜 연구의 시간적 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셋째, 아세아의 공산주의 수용이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혁명의 충격으로 인한 자생적 운동인지, 아니면 아세아 각국의 유기적 연대에 의한 운동의 일환인지를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이같은 연구는 단시일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 많은 축적이 있어야 총체적 영상이 얻어질 수 있는 과제입니다. 동아연구소의 이 회의가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